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 도입방안

2026. 4.

금 융 위 원 회

목 차

I. 추진배경	1
II. 현황 및 문제점	3
III. 추진방향	6
IV. 세부 추진방안	7
V. 기대효과	15
VI. 향후 추진계획	17

I. 추진 배경

◆ 지속되는 경기침체, 고금리·고물가·고유가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여건 악화**.
 특히, 금융권의 **담보 위주 대출관행** 등으로 **소상공인 금융애로** 지속

□ '25년 **소상공인***은 약 **790만개**(전체 사업체 수의 95%), **종사자 수 1,090만명**(전체 고용인구의 46%)으로 **내수 경제의 핵심 기반**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3년 평균매출액 15~140억원 이하의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

○ 코로나 이후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고금리·고물가·고유가** 등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영환경은 지속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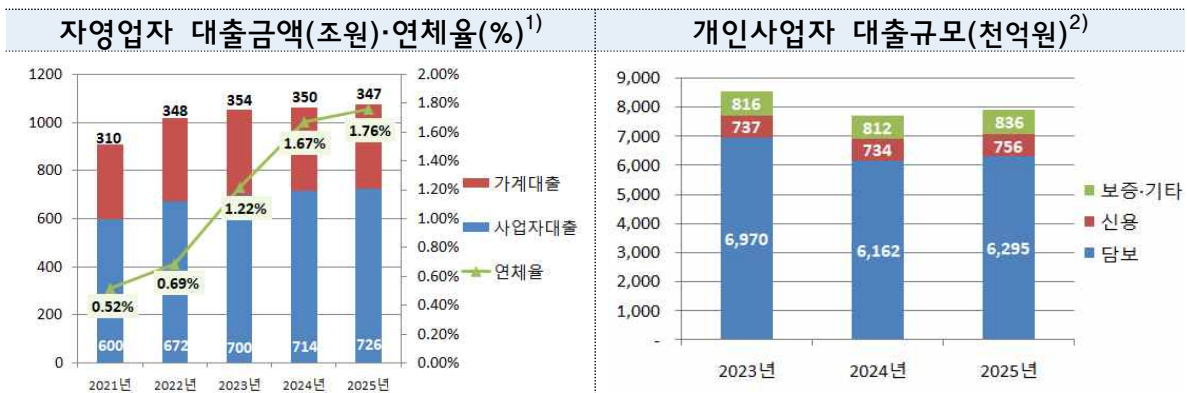
* 소상공인 약 72.4%가 '25년 자금사정이 '24년 대비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 약 32.1%가 경영애로사항으로 "금융비용" (2025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

□ '25년말 잔액 기준 **1,072조원** 규모인 **자영업자의 대출***은 '22년 이후 **연체율 지속 증가**(0.69%('22)→ 1.22%('23)→ 1.67%('24)→ 1.76%('25))

* 개인사업자 대출 714조원+개인사업자 대출보유 차주의 가계대출 357조원

□ 한편, **개인사업자 대출의 약 90%는 담보·보증대출**(신정원 보유 통계 기준)로, 금융권의 **담보 위주의 보수적 대출관행** 여전

* 개인사업자 대출별 비중('25): **담보 79.8%, 보증·기타 10.6%, 신용 9.6%**



1)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5.12월, ('25년 수치는 3Q 기준)) / 2) 신용정보원

◆ 소상공인 신용평가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소상공인 체감 효과는 미흡, 최근의 디지털기반 영업환경 변화도 신용평가에 반영 필요

□ 미래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 자금배분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체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신용평가시스템 필요

○ 이를 위해 개인사업자 CB* 등을 도입('20.8월)하였으나, 비금융정보 활용제한 등으로 여전히 대표자 개인의 금융정보 위주** 평가

* 기존 체계(CB 단일 라이선스)에서는 대형CB가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도 전담하였으나, '20년 법개정후(평가대상자별 CB라이선스 세분화), 카드사 등 5개사 개인사업자CB 신규 진입

** "대표자 개인" 정보는 최대 79.8%, "금융" 정보는 최대 91.5% 반영중(KCB)

□ 최근 소상공인 영업환경이 플랫폼·온라인 주문결제 등 디지털 기반으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는 점도 평가에 반영될 필요

* 온라인쇼핑몰 거래액(국가데이터처): ('21) 192.7조원 → ('25) 275.0조원(+42.7%)

➔ “담보나 과거 금융이력”이 아닌 “데이터와 미래 성장성”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확산 필요

소상공인 신용평가 관련 해외 동향

◆ 해외 주요국들도 소상공인 신용격차 해소를 위해 데이터 공유·활용을 촉진하는 등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노력 중

▶ [영국] 영국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 접근성 종합 로드맵('25~'28)」을 수립하여 신용정보 공유체계 개선*, 대체금융 연결제도 등을 위한 법령·시스템 정비 중

* 데이터 허브에 정제·가공된 소상공인 데이터를 집중, AI에이전트가 이에 접속하여 데이터 확보

- 英 SME 특화은행 Oak North Bank는 소상공인 대출에서 현재 실적외 향후 성장성·잠재력을 별도 스코어로 평가, 여신결정시 신용등급과 함께 활용* 중

* 성장성·잠재력이 높으면, 동일 신용등급 만기·한도에서 우대하는 적극적 오버라이드(Override) 허용

▶ [미국] Experian·Equifax 등 민간CB사는 상거래 데이터, 공공기록 등을 결합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별도 신용점수를 산출·제공

- CB사는 소상공인 신용평가시 부도예측 등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체의 현금 흐름, 운영 상황 등도 데이터셋으로 산출하여 금융회사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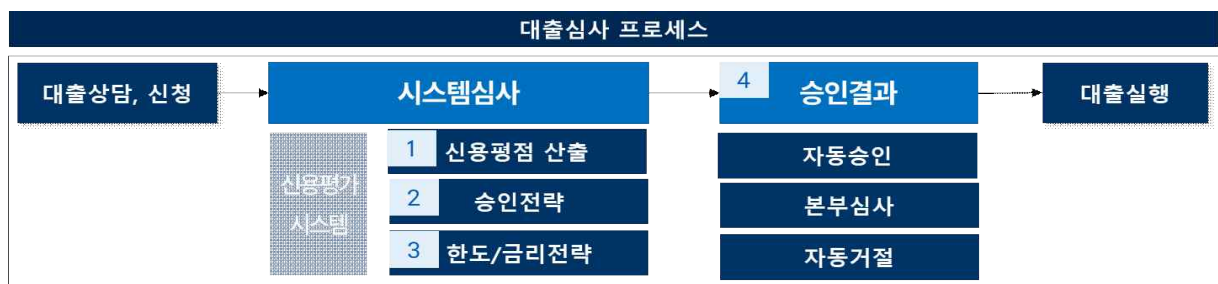
▶ [인도] 공공기관 주도로 민간 CB사와 소상공인 전용 신용등급(FIT Rank)을 개발하여 민간 대출, 정책금융상품의 심사, 자동승인 기준 등으로 활용 중

II. 소상공인 신용평가 현황 및 문제점

1 소상공인 신용평가 현황

◆ 現 소상공인 신용평가 = 대표자 개인 신용도 + 상환능력(사업장 매출)

- 現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사업자금·가계자금 대출심사 절차는 개인의 가계대출 심사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
 - ①CB평점, 내부정보 등 활용, 금융회사 내부 CSS신용평점 산출
→ ②CSS평점, 내외부정보 등 승인전략 검토하여 대출가능여부 판정→ ③사업자매출 등 상환능력, 신용도에 따른 한도·금리 부여



- 비금융 대안정보CB, 개인사업자CB 평가결과 등이 일부 금융회사 내부 CSS 모형에 반영되기도 하나, 아직 활용도 미흡
- 소상공인 보증대출 취급시에도 보증서 발급기관*, 대출 금융회사** 등은 대표자 개인의 신용도와 상환능력을 주요 요소로 심사
 - * 예) 개인사업자 보증서 발급시 개인신용평점 등이 심사에 필요한 사례 존재
 - ** 부분보증외 잔여대출의 리스크 부담으로 대표자 신용도가 낮을 경우 대출거절
- 한편, 소상공인은 매출이 높아져도 비용지출(임대료·인건비·재료비 등) 비중이 커서 소득금액증명원 상으로는 상환능력 저평가 경향
 - 사업확장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부채수준 악화로 평가

2

現 소상공인 신용평가의 한계

① 대표자 개인의 신용도 중심 평가로 **사업성과와 신용도의 괴리** 발생

- 개인사업자는 “개인” 과 “사업자” 의 복합적 성격을 가지나, 신용 평가는 “대표자 개인” 의 금융정보 위주로만 평가
 - 대표자 개인의 과거 연체, 거래이력 등 금융정보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사업장 정보 등 비금융정보는 보조적으로만 활용
 - 매출 성장 추이, 우수한 평판, 상권 경쟁력 등 미래 성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업장 관련 정보가 미반영
 - 이로 인해, 사업이 잘되어도 개인 신용도가 낮으면 금융제약이 발생하는 등 사업성과와 신용이 괴리되는 상황 발생

<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항목별 평가비중(KCB 기준) >

구분	상세정보	평가비중
상환이력정보(개인)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신용회복 정보	35.8%
대출정보(개인)	대출 개설·해지이력, 대출금 상환이력	21.5%
카드정보(개인)	카드발급·해지이력, 카드이용실적	22.5%
개인사업자 여신정보	개인사업자여신 개설·상환이력	11.7%
사업체 개요 정보	사업체 보유이력 등	8.6%

- 소상공인의 영업현황은 경기 변동성이 높으나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비금융·비정형정보 활용이 낮아, 신용평가의 적시성 부족

② 체계적인 **소상공인 정보관리시스템 부재**로 정보의 유기적 활용에 한계

- 소상공인의 다양한 비금융·비정형 정보를 연계하는 인프라, 데이터 표준이 부재하여 유기적 활용에 어려움
- 정보의 제공·활용 절차가 복잡하고 데이터 확보 비용도 부담

③ 소상공인에 대한 정교한 신용평가 유인 체계 부족

- 가계대출 한도관리 등으로 대출 가능한 재원이 제한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기존의 우량 금융실적 소상공인 위주 자금배분
 -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성장성을 정교하게 평가하여 미래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하는 것보다는,
 - 기존 방식대로 금융거래 정보가 양호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배분하는 보수적 심사가 금융회사 비용절감 측면에서 유리
-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소상공인의 신용평가에 기반한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보증부대출” 위주로 취급
- * [’25년 대출 비중] 개인사업자 : 신용 9.6%, 담보 79.8%, 보증·기타 10.6%
법인사업자 : 신용 44.5%, 담보 48.6%, 보증·기타 6.8%
개 인 : 신용 21.4%, 담보 64.4%, 보증·기타 14.2%
-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사업체의 성장성보다 사업자 대표 개인의 대출 이력, 연체정보 등을 크게 반영
- 정책보증기관 등의 경우도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 발굴·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고도화된 신용평가 체계 개편이 필요한 상황
 -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경우, 정책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더라도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거절하는 사례 등 개선 필요

➔ **소상공인의 성장과 재기를 돕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의 혁신** 필요

III. 추진방향

< 기본 방향 >

- ◆ 매출, 업종 등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선별할 수 있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 ◆ 소상공인의 다양한 비금융·비정형 정보를 체계적·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
- ◆ AI-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를 통해 정책 금융과 민간 금융의 **소상공인 자금공급체계 선진화**

추진방안	세부 추진과제
1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 (SCB) 도입	1 (평가대상) 4개 업종별 평가모델 구성 2 (평가방식) 미래 성장성 중심 평가 3 (평가체계) 표준모델 구축 → 차별화·고도화
2 소상공인 통합정보센터 (SDB) 구축	1 소상공인 데이터 수집·관리 인프라 구축 2 소상공인 특화 DB 구축 및 통계분석 제공 3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지원
3 금융권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지원	1 정책금융기관 중심 선도적 SCB 활용 추진 2 민간 금융기관의 SCB 활용 지원체계 마련

IV. 세부 추진방안

1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 (SCB)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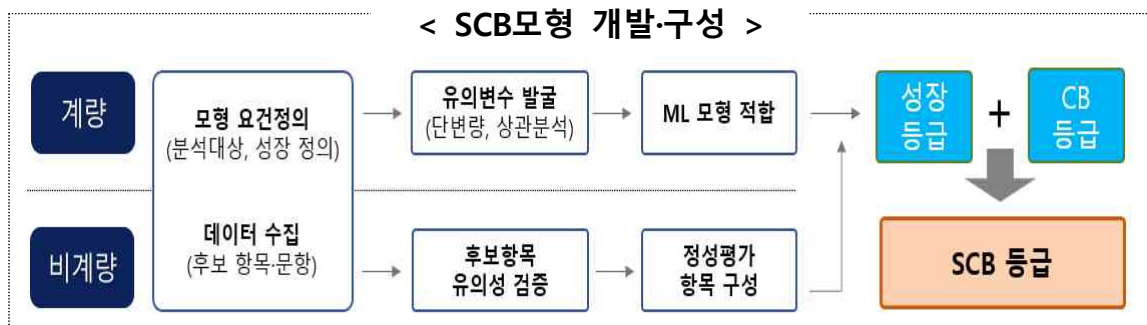
가. 그간의 추진 경과

▶ '25.7.17일 소상공인 금융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릴레이 현장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 도입 필요성 제기*

* "28살에 취업해서 3개월 다니니 신용대출 2천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30년 장사하고 성실하게 상환해도 대출이 안나와 사채를 쓰셨습니다."

▶ 금융위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도입 추진을 발표('25.7.24)하고, 중기부, 신정원, CB사, 금융업권 등과 SCB실무작업반 운영('25.8월~)

▶ 신정원과 NICE평가정보 공동작업으로 SCB 모형개발('25.9~'26.3월)



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개요

◆ 매출, 업종 및 상권정보 등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미래 성장성을 함께 평가하는 AI기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 Small-business & Self-ownership Credit Bureau

□ (평가구조) 대표자의 과거 부도율에 기반하는 기존 신용등급(CB)과 사업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는 성장등급(S등급, Scale-up)을 결합



⇒ 대표자의 금융이력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사업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장 가능성 높은 소상공인 발굴, 금융지원 확대

□ **(성장성 평가방식)** 유사한 특성의 업종별^① 4개 세그먼트로 구분, 매출·상권정보 등을 토대로 미래 성장성^②을 평가(10등급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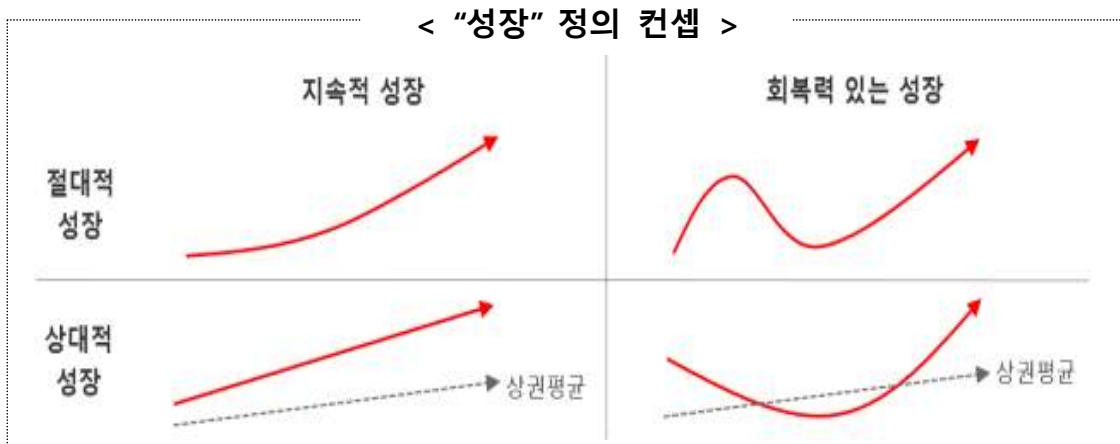
* 기존 신용등급제 사례 등을 감안하여 10등급 구간으로 구성

① **(업종특화 평가)** 유사 특성을 갖는 ①도·소매업, ②숙박·음식점업, ③기타 서비스업, ④기술업종으로 구분하여 세분화된 모형 적용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협회, 국제기관, 보건업·전문서비스업(일부 전문직종) 등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업종은 제외

② **(미래성장성 평가)** 업종상권내 지위¹⁾, 절대적·상대적 매출성장률²⁾, 지속가능성·회복력³⁾ 등을 기초로 미래 성장성을 정의하고 평가

- * 1) 업종 및 상권별 매출 상위구간(예: 상위 5%)의 소상공인
- 2) (절대적) 일정수준(예: 50%) 이상 매출성장률, (상대적) 주변상권 대비 높은 성장률
- 3) (지속성) 높은 매출성장률 지속, (회복력) 일시적 매출 하락후 다음반기 성장 회복



□ **(S등급 산출모형)** AI를 통해 성장 확률을 도출하는 계량모형^①과 정성적 요소를 추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비계량모형^②으로 구성

① **(계량모형)** 매출, 업력, 근로자 수 등 업종별로 약 40여개의 설명변수*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성장 확률 예측 ⇨ **S등급****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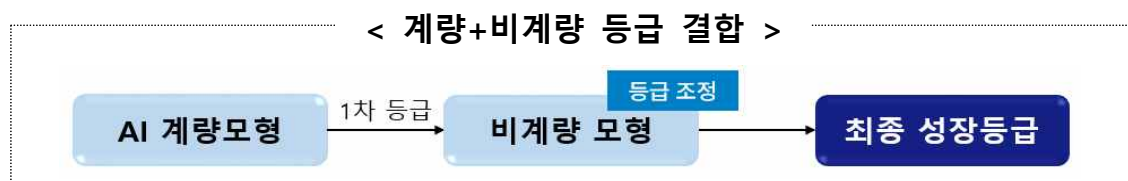
*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신정원, CB사, 유통 플랫폼 등이 보유한 비금융 정보 항목들을 후보로 정한 후, 변수의 예측력 분석, 변수간 상관분석, ML 알고리즘을 적용한 다변량 분석 등을 통해 최종 설명변수 선정

등급	S1	S2	S3	S4	S5	S6	S7	S8	S9	S10
** 평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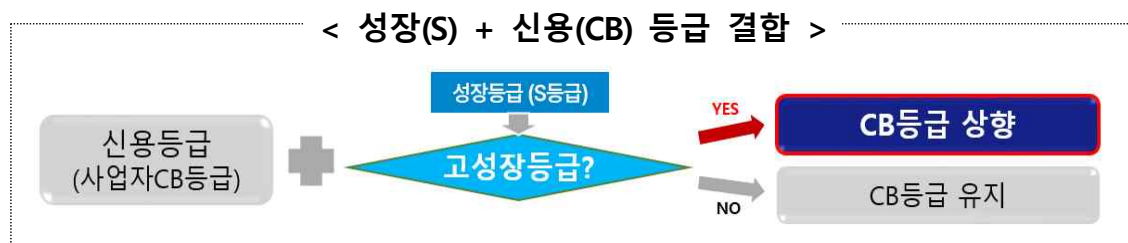
② **(비계량모형)** 계량적 설명이 어려운 차별화 속성¹⁾, 전체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항목²⁾ 등은 온라인 검색 AI Agent,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 후 **가점 부여**

* 1) 사업자 역량, 상권 특성, 업종 트렌드, 영업 전략, 서비스 차별성, 인지도 등
2) 지재권·인증 보유, 온라인 플랫폼 정보, 경영주 경험·지식수준, 세금정보 등

③ **(계량+비계량 결합)** 매트릭스 결합을 통해 비계량모형 등급이 높은 사업자의 계량모형을 한 단계 상향 ⇨ **최종 S등급** 산출



□ **(S+CB 결합)** 성장등급(S)이 높은 사업자가 상위 CB 등급에 해당하는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버라이드 가이드 마련



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운영계획

- ◆ SCB모형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단계별 도입 추진
 - ▶ (1단계) **신정원 개발 모형**을 통한 시범 운영 ('26.하~'27.상)
 - 시범 운영 결과 평가 및 보완 ('27.상~하)
 - ▶ (2단계) 평가결과를 토대로 CB 및 금융회사 **차별화 모형** 개발·활용 ('27.하~)
 - ▶ (3단계) SCB실적 인센티브 구조화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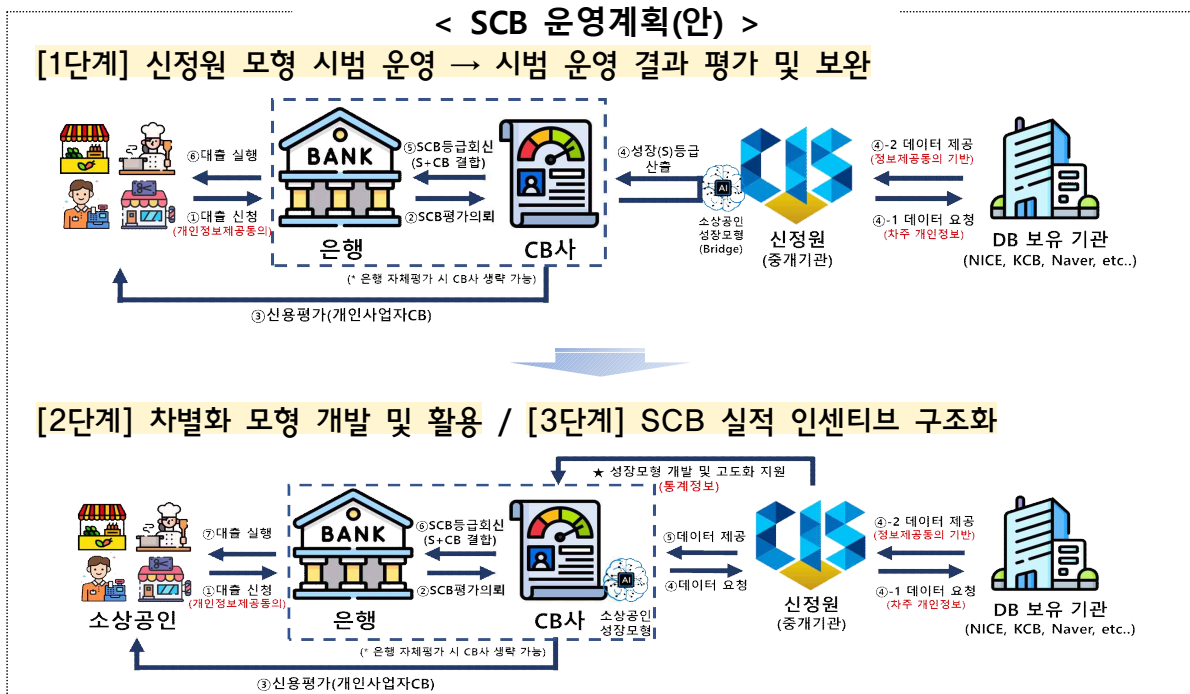
- (1단계) 신정원 개발 모형을 소상공인 대출에 시범 운영 ('26.하~'27.상)
 - (신정원) 계량모형으로 S등급 산출하여 CB사에 제공* → (CB사) 비계량모형으로 가점부여 후 최종 SCB 등급 제공
 - * 신정원 모형 전업권 공동 활용, 신정원은 IT인프라 제공 및 데이터 중개 역할

- ※ 기업·우리·KB국민·신한·농협·하나·제주은행 등 7개 기관이 약 1.8조원(잠정) 내외의 소상공인 대출상품 심사에 SCB등급을 활용하는 시범운영에 참여
- ※ **소진공, 경남지역신보*** 등의 경우에도 전산적 연계 가능성 등 검토 후 추진
- * 기존 지역신보의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과의 전산적 연계 가능성 등 검토

⇒ 시범 운영 결과 평가 및 SCB 모형 보완* ('27.상~'27.하)

* 예) 성장성 부실률 예측에 적합성이 떨어지는 지표 제외 // 적합성 높은 지표 반영률 상승

- (2단계) CB·금융사별 고유 DB·인프라 구축, 이를 토대로 차별화된 SCB모형 구축 및 고도화 (신정원은 데이터 중개 역할) ('27.하~)
- (3단계) 금융권 SCB 실적 점검 및 인센티브 구조 운영 ('28~)



2

소상공인 통합 정보지원 인프라 구축

- ◆ 다양한 소상공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금융권이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통합 DB**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통계분석 서비스** 등 제공

가. 소상공인 통합정보센터(SDB) 구축

- 금융권의 신용평가, 통계분석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소상공인 통합정보센터(SDB*) 구축

* Small-business & Self-ownership Data Base

- 금융정보 외 소상공인 사업장 개요, 재무, 고용정보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SDB에 집중·관리하여 신용평가 활용 등 지원

< 소상공인 통합정보센터(SDB) 구축 활용(안) >



< SDB 수집 주요 정보(안) >

구 분	수집 정보 (보유기관)
기업개요정보	기업통계등록부(데이터처), 고용보험 가입사업장(근로복지공단), 신용카드 가맹점(여신협회), 휴폐업정보(국세청) 등
재무정보	신용카드 매출(여신협회), 이커머스 유통정보, 온누리상품권(소진공) 등
고용정보	상시근로자수(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근로복지공단) 등
대안정보	자금이체 정보(금융결제원), 지식재산권(특허청) 등
거시정보	경기체감지수(소진공), 행정동별 인구 추이(행안부) 등

* 이커머스 유통정보,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금융결제원 정보, 세금 관련 정보 등 일부 정보는 보유기관과 협의 중

나. 소상공인 특화 통계분석 서비스 제공

- (소상공인 특화 DB 구축 및 통계분석) 소상공인 특화 상품개발, 맞춤형 금융컨설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SDB 구축 및 통계분석 지원*

* SDB 기반 맞춤형 통계분석을 우선 지원 → 향후 별도 플랫폼 구축도 추진

- 업종·상권 단위 소상공인 현황 및 주요 지표(매출·고용 등), 자금 현황 등을 제공하여 금융회사의 비금융정보 접근성 제고

< 예시: 소상공인 특화 통계분석 서비스(안) >



- (S등급 프로파일 서비스) CB사, 금융회사 등에게 소상공인 S등급 평가결과 관련 주요 평가요인 등 설명·해석 서비스 제공

-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및 변수별 영향도 결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등급 산출근거의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강화

< 예시: S등급 프로파일 서비스(안) 및 운영 구조 >



※ API로 우선 제공하며 향후 플랫폼 구축 시 관련 콘텐츠 제공 예정

3

금융권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지원

- ◆ 1단계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회사의 **SCB 활용 지원체계 확산** 추진

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시 SCB 활용 유도

- 정책금융기관 등 중심으로 **SCB를 활용한 대출상품 시범운영**(‘27.상)
 - 예) S상위 등급(1~3등급)에 정책자금 금리·한도우대 등
- 정책금융기관 등의 SCB 모형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소상공인 정책금융상품*** 제공시 **SCB등급 활용 확산**(‘27.하~)
 - * ‘25년 기준 신보, 지신보 등의 개인사업자대출 보증규모 66.9조원, 소진공 등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규모는 약 3.8조원
 - ※ SCB 활용 대상이 되는 정책금융상품의 범위는 **상품 특성, 기관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나. 금융권의 SCB 활용 지원체계 마련

- **SCB 이용 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하여 금융사 임·직원의 SCB 활용시 **면책, 성과평가 반영** 등 유인체계 마련 (‘26.하)
-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 대출시 SCB 모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업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26.하)
 - * SCB를 통해 산출된 등급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에 해당됨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명확히 규정
 - ** 금융회사가 상권 및 업황을 고려한 개인사업자 여신심사시 SCB등급 결과 등을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案)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신용정보의 범위) ⑧ 영 제2조제17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 7. (생략) < 신설 >	제2조의2(신용정보의 범위) ⑧ 영 제2조제17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기업 및 법인의 성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를 처리하여 생성되는 정보로서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접수나 등급 등으로 표시한 정보

<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안(案) >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상권 및 업황 등을 고려한 여신심사) ① 과밀 상권 및 업종에 대한 개인사업자들의 과도한 창업 집중으로 인한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은행은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시 영위 업종의 현황 및 상권 특성을 분석하여 여신심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법 및 절차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19조(상권 및 업황 등을 고려한 여신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방법 및 절차는 사업장에 대한 평가결과가 반영된 신용정보회사 등의 신용평가 결과(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조의2제8항제8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한다) 등을 참고하여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 1단계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은행권 SCB 활용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27.하)

* 은행권의 SCB 활용비중, 대출실적, 인프라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은행권 SCB 활용 평가(예시) >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① SCB 활용 비중	소상공인 대출 중 SCB 활용비중 등
② SCB 활용 대출실적	SCB 활용 소상공인 대출액, 전체 대출 중 비중 등
③ SCB 활용 인프라·노력	SCB 전용상품 개발 및 공급 실적 등
④ 소상공인 평가역량	자체 소상공인 평가인력, 전담조직, 평가 운영방식 등

○ 분기별 점검, 평가결과 공개 등을 추진하고, 최종 평가결과를 포용금융 종합평가* 등에 반영 추진(‘28~)

* 현재 마련 중인 "은행권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등에 실적 반영 추진

V. 기대 효과

① 소상공인 70만명에 연 10.5조원 신규대출 공급, 금리인하 845억원

□ SCB 등급을 활용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신규대출 승인, 추가 한도 및 금리우대 효과 기대

○ (신용등급 상향효과) 최상위 S등급 약 32.2만명*이 은행권 신규·추가 대출 연간 약 5.4조원**, 697억원 금리인하 효과

* 중하위 신용등급 소상공인 중 성장성(S)등급 최상위권(S1~S2) 예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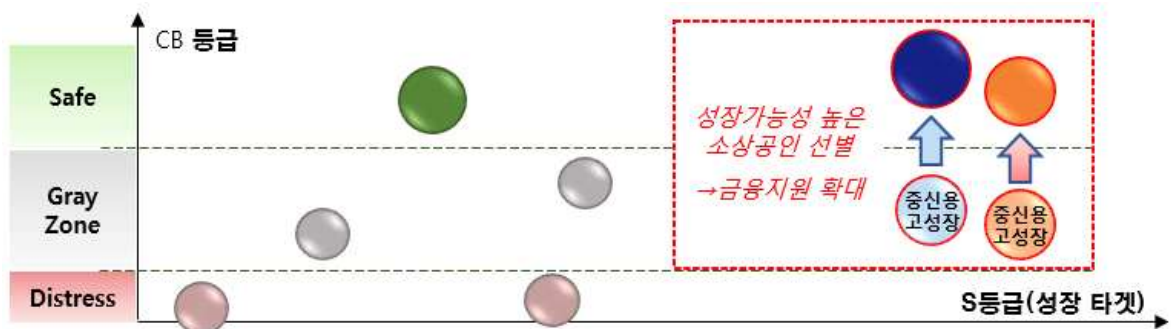
** 대출 미보유 18.2만명 신규대출 4.8조원 + 대출 기보유 14.1만명 추가대출 0.6조원

○ (한도·금리우대 효과) 기존의 고신용 소상공인 약 37.6만명*도 신규·추가 대출 확대 약 5.1조원**, 148억원 금리인하 효과

* 소상공인 중 성장성(S)등급 상위권(S1~S3) 예상자(단, 신용등급 상향대상은 제외)

** 대출 미보유 3.1만명 신규대출 3.3조 + 대출 기보유 34.5만명 추가대출 1.8조원

< SCB모형 적용방안 및 혜택대상 추정(예시) >



⇒ CB 중하위등급(4~10등급) 구간에 해당(약 53.3%)하는 소상공인 중 약 10%가 S등급 상위(1~2등급)에 해당 가능[신정원 보유 소상공인 데이터 약 607.3만 기준 약 32.3만]

업종	전체 사업자	중하위 CB등급 대상	상위 S등급 대상
도·소매업	194.4만	111.8만	10.4만
숙박·음식점업	168.3만	89.3만	9.0만
기타 서비스업	168.3만	93.7만	10.0만
기술업	76.3만	28.6만	2.9만
총계	607.3만	323.4만	32.3만

⇒ 상기 신용등급 상향 대상 외 성장등급 상위 등급(1~3등급)의 경우에도 한도 확대, 우대 금리 인하 등의 혜택 기대 [신정원 보유 소상공인 데이터 약 607.3만 기준 약 37.6만]

② 소상공인 대출의 리스크 평가 정교화에 따른 **소 금융이용자 혜택**

- SCB 등 소상공인 전용 대안신용평가모델이 시장에 안착되면 중·장기적으로 소상공인 대출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
 - * 예) 美 Experian社は 자사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이 전통 CB 데이터와 결합시 **부도율 예측 정확도가 최대 20% 정도 향상**된다고 언급
- 매출 추이, 상권, 고용 및 사업 역량 등 다양한 대안정보를 활용하여 '성장할 사업'과 '부실 위험'을 더욱 정확하게 구분
- 금융회사의 리스크 비용 절감, 건전성 개선 등에 기여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모든 금융이용자의 여신환경 개선 가능

③ AI-데이터 기반 금융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

- 심사역의 주관적 판단 개입을 최소화*하고 계량지표, AI 분석·예측 등을 활용한 AI-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금융 기반 마련
 - * SCB 계량평가 비중 약 90~95% 내외
- 과거 결산수치 중심의 전통 신용평가로는 공정한 평가를 받기 어려웠던 초기 성장단계의 소상공인에 대한 데이터기반 평가
- 담보부족, 낮은 대표자 신용 등으로 고금리 시장으로 밀렸던 소상공인이 데이터기반 미래 가치를 인정받고 제도권 금융 진입

⇒ 미래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금융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 고용창출 등에 기여하고 **경기회복의 동력 창출**

VI. 향후 추진계획

- ① 관련 법규가이드라인 등 제·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발 ('26.2분기中)
 - 신정원의 SCB/SDB 업무근거 마련 위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 금융권 여신심사에 SCB 활용 위한 가이드라인, 업무매뉴얼 마련
 - 금융권·CB사의 SCB 활용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1단계 시범 운영을 위한 기관별 상품 준비·개발 등
- ② 신용평가모형(SCB) 및 통합정보센터(SDB) 운영개시 ('26.3분기~)
- ③ 신용평가모형(SCB) 시범 운영 결과 평가 및 보완 ('27.상~하)
- ④ CB사별 차별화된 신용평가모형(SCB) 고도화 추진 ('27.하 ~)
- ⑤ 금융권 SCB 실적 점검 및 인센티브 구조 운영 ('28~)

< 세부 과제별 주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구분	세부과제	조치사항	일정
1.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모형(SCB) 도입	① SCB 운영업무 근거 마련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26.2분기
	② SCB 시스템 운영 개시	전산개발 등	'26.3분기
	③ CB사·금융권 SCB 고도화	CB사 전산개발 등	'27.하~
2. 소상공인 통합정보 센터 구축	① 카드사 가맹점 매출정보 집중 등 SDB 정보 집중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 정보 보유기관 협의	'26.2분기~
	② 소상공인 특화분석 서비스 등 제공	전산개발	'26.4분기
3.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지원	①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SCB 활용 추진	SCB 적용대상 상품 확대·개발 등	'26.3분기~
	② 민간금융기관 SCB 활용 인센티브 제공	SCB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26.2분기
		여신심사가이드라인 개정	'26.2분기
		평가제도 마련	'27.하~